칼럼

계란공급 관리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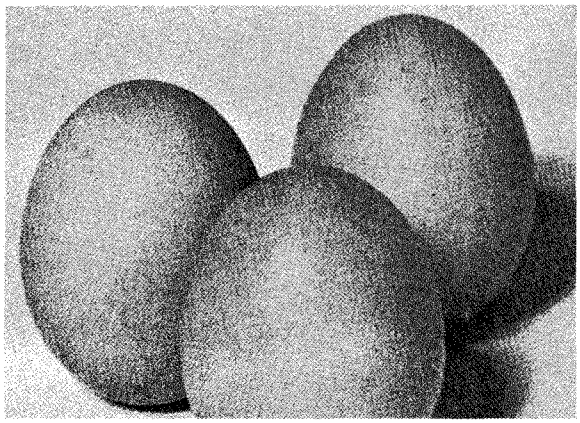
농산물 가격을 자유스런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요즈음 더욱 회의를 느끼게 되는 것은 나만이 아닌 것 같다. 또한 채란양계업의 장래를 자유시장 체제에 목을 걸고 기대하는 것도, 쳐다만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이다.

지금의 계란의 생산량은 이미 1년전에 입추된 병아리 수수에 의하여 생산이 결정되어 있고, 계란소비는 계절적으로 편중된 소비 패턴에 따라 심하게는 30%의 격차를 두고 오르내리니, 일년에도 몇번씩 심한 난가불황을 당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연중행사이다. 게다가 우리는 공급량과 수요량의 차이를 완충시킬 수 있는 장치마저 아직 초보단계에 있어, 도저히 수익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이 채란양계업이다.

발 뻗을 자리를 보고 눕는다고, 수익예측이 안되니, 막대한 돈이 드는 건물과 시설개선에 돈을 쏟아넣을 의욕도 생기지 않는다. 한국의 채란양계업이 국제경쟁력을 갖기란 요원한듯 느껴진다. 이러다간 영영 국제양계업계에서 헤비급 선수 밑의 페더급선수 노릇이나 하게 되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채란양계업의 특징은, 약간의 공급과잉으로도 난가는 크게 하락하는데 있다. 계란의 가격탄성치를 −0.5라 하면, 5%의 생산증가로도 단기적으로 33% 정도까지의 가격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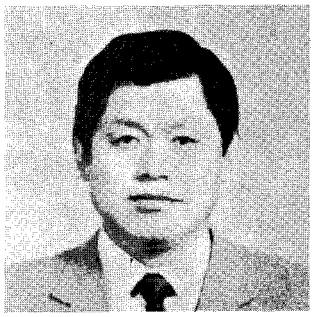
실제로 최신의 계사건물과 시설을 자랑하는 양계선진국 일본, 미국에서도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해결하지 못하여 지난 2년째 심각한 저난가에 시달려 오고 있고, 그간 자유시장 체제의 업적으로 평가되어온 장래가 촉망되던 양계기업들이 도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야말로 푸짐한 진수성찬으로 잔치상을 차려놓고 굶주리는 현상을 이들 선진국에서 우리는 실제로 목격하고 있고, 이들이 찬양해온 자유시장 기능에 의존한 농업발전 방식의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축산업 주원자재인 사료곡물을 거의 전량 외국에 의존하는 환경에서는 자유시장 원리의 결과를 어떠한 두려움 마저 느끼게 된다.

자유경쟁체제에서는 높은 생산효율이 비효율을 퇴치한다. 이 원리가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온 것은 사실이다. 연평균산란율 80%를 생산하는 양계장은 살아남고, 70%를 생산하는 양계장은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 자유경쟁체제에서의 원리이었다. 또 그렇게 되어야만 그 산업사회는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우리의 양계업도 이러한 경쟁원리의 바탕위에서, 죽은 자 위에서 산자가 기쁨을 만끽하는 발전을 계속하여 왔다. 이것이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튼튼한 양계산업이 될 수 있는 정도로 생각했었다.

이제 우리도 만성적인 저난가, 누적된 적자 속에서 찬란한 국제경쟁력 있는 양계발전을 하여야할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질적 발전을 향한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죽은자 위에서 산자가 성장하는 방법대신 어리석고 자금력이 약한 소규모 양계가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할 시기에 도달한 것이 아닐까? 고효율이 비효율도 너그럽게 수용하여 조화를 이루는 안락한 사회가 우리의 목



김 영 환
한국양계연구소장
본지편집위원

표가 아닐까?

지난 10년간 계란공급관리 체제를 택한 호주와 캐나다를 여행할 기회가 있었다. 법의 밑받침 위에서 계란 생산과 공급을 조절하는 계란공급 관리체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 호주 이외에도 뉴질랜드, 이스라엘, 남아연방, 필랜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각국의 난사비 (계란1kg으로 구입할 수 있는 사료량)

	1976~82	1983~85
자유시장체계		
미 국	4.4	3.9
프 랑 스	3.9	3.5
화 란	3.6	3.3
서 독	3.9	3.5
영 국	3.8	3.5
공급관리체제		
캐 나 다	5.3	6.0
남아연방	5.6	5.3
뉴질랜드	5.7	5.3
호 주	6.0	

쿼타제에 의한 계란관리 체제의 가장 큰 장점은 양계가들에게 보다 큰 이익을 보장하는데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같이 자유시장 체제국가에서는 계란 1kg을 팔아 사료 3.5~3.9kg을 살 수 있는데 비해 계란공급관리 체제를 택한 나라에서는 5.3~6.0kg의 사료를 살 수 있는 높은 양계수익을 누리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좋은 양계 수익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양계시설을 현대화하고 있고 적은 양계규모로도 안정된 문화생활을 하고 있으며, 양계가가 단결하여 계란품질향상과, 유통개선을 달성해오고 있다.

그러나 계란공급관리 체계에도 많은 단점은 있다. 생산의 자유를 침해하는 관료제도— 현존 양계가만을 지원—고효율 생산자의 발전 저지—공급관리 비용이 추가되는 높은 계란 소비자 가격 등의 문제들이 주된 단점으로 꼽힌다. 그리고 일단 시도된 체계는 되돌리기가 어렵다. 계란공급체계는 자유시장 체제로부터 점진적으로 시도되어야할 마지막 단계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많다.

한국의 채란양계실상을 좀더 살펴보고 이 칼럼을 끝내고자 한다. 1988년 5월, 평균 57g인 대란 1kg의 판매가는 474원, 산란사료 1kg당 가격은 160원이었다. 즉 계란 1kg을 팔아 사료 2.96kg을 살 수 있는데 불과하였다. 계란공급관리 체제에서 6.0kg에 비하여 너무 수익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계란소비량이 빠른속도로 증가한 덕분에 계란가격 유지에 비교적 순탄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20%증가가 고작일 것으로 생각된다. 서구식 식생활을 하는 화란의 1인당 년간 계란 소비량은 220개, 현재 한국인의 1인당 계란소비량을 180개로 보면 한마디로 한국의 채란양계업은 물량면에서는 성장할대로 성장한 것 같다. 10,000수 규모의 양계가는 12,000수까지 밖에는 더 늘릴수 없는 거의 터미날까지 다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우리의 채란양계가 가야할길은 무엇인가. 대 자본에 의한 고효율을 향한 인티그레이션인가? 비효율도 설 땅을 남겨줄 수 있는 계란공급관리 체제인가? 또는 협동조합이나 농사법인체에 의한 양계가 지원체제인가. ?

이제는 한번 여러가지 모형을 연구검토해 볼 시점에 이르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성급한 모범답안을 주장하기에 앞서, 인내를 가지고, 호혜평등의 마음으로, 나보다는 우리의 관점에서 방향을 잡아나가야할 것 같다. 양계